

순천시 외서면 쌍울마을, ‘만원으로 집짓기’ 준공식 가져

80여 명 후원자 · 순천후원회 · 어린이재단 추진
연말 생계비 지원 ‘희망백신 프로젝트’ 사업 예정

순천시는 최근 외서면 쌍울마을에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을 통해 추진한 ‘만원으로 집짓기’ 준공식을 후원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아동가정은 올해 1월 외서면 시민과의 대화 때 지붕누수와 집 밖 재래식 화장

실, 보일러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퍼 물을 데워 사용하는 등 조모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 아동가정에 최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순천시와 조목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이하 어린이재단)가 지난 6월 협약을 맺고 ‘집다운 집’마련사업을 시작했다.

주택 리모델링은 80여 명 후원자의 모금과 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 김용재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 회원과 어린이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4,170만원으로 추진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주거빈곤 아동이 집다운 집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새 집을 선물받은 아동은 “추운 날 밖으로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할머니가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오시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어 좋다.”며 자신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후원자가 되겠다는 감사편지를 남겼다. 한편, 어린이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 취약계층 80가정에 9백만원을 추석명절 위문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위기아동가정 100가구를 선



정해 가구당 8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연말에는 위기아동가정 100가구를 선 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용연학교, 독거 노인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독거 노인 창고 연탄 300장 전달

광주시교육청 Wee스쿨인 용연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난 6일 동구에 사는 독거 노인(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라면 3박스를 전달했다. 9일 용연학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용연학교의 대안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우리 모두 함께 극복 챌린지’의 일환으로 기획

됐다. 학생·교직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했다. 용연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독거 노인의 집 창고에 새 연탄 300장을 채워 넣는 작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을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사랑의 연탄 배달에 참여한 용연학교 3학년 한 학생은 “덥고 힘들긴 했지만 할머니께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것을 생각하니 굉장히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연학교 윤희조 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이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흐뭇했다”며 “용연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오곡면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

다양한 주체 동참시켜 치매파트너 교육 진행



곡성군이 오곡면사무소를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11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극복 선도기관 사업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치매극복을 위해 다양한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고 구성원을 치매파트너로 가입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구성

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하고, 기관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올해 오곡면 오지3구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사례관리 등의 노력과 함께 선도기관 지정으로 치매극복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양혜영 기자

광주 동명고, 배려계층에 생필품 꾸러미 나눔

지난 11일 광주 광산구 동명고등학교(교장 이명석)가 배려계층 20세대의 겨울나기에 써달라며 쌀, 화장지 등이 든 200만원 상당

의 생필품 꾸러미 20세트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에 맡겼다. 이명석 교장은 “동명고등학교는 돌봄, 배려, 나눔, 배움을 실천하는

인재 육성의 장이라는 교육비전에 따라 우리지역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목포시 원산동 지사협, 취약계층 건강꾸러미 전달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 25세대 건강 물품 나눔

목포시 원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소)는 지난 10일 건강물품 꾸러미 25세트(200만원 상당)를 취약계층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25세대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협의체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로 영양 상태를 유지해 건강한 겨

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물품꾸러미 속에 영양제와 간편식(즉석국, 죽, 라면, 두유 등)을 준비해 해당 세대에 방문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고, 지난 추석에도 김영소 위원장은 외롭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백미10kg 40포를 기탁



해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전달하기도 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